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8
----------	-------

제출년월일: 2026. 8. 13.

발 의 자: 이진분, 한명훈, 현옥순, 이재복
김재국, 선현우, 박은정, 백승희
윤오일, 김태성, 천복희, 윤성영
염정우, 설호영, 유민희, 김진숙
이상우, 안두희, 최찬규
의원 (19인)

1. 주 문

- 1987년 착공된 시화호는 안산시가 핵심 수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30년 넘게 과거의 관습적 명칭을 유지하며 안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온전히 담아내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시화호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 착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1994년 대부도의 안산시 편입과 시화호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포함되었으나, 고착화된 명칭으로 인해 주요 시설물 명명 등 안산시의 정체성 확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관계 지자체 간 협의,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재정립, 지명위원회 심의 착수 등 실질적인 명칭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안산시장, 시흥시장, 화성시장, 시흥시의회의장, 화성시의회의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1987년 착공한 시화방조제 사업은 수도권¹의 산업단지 및 농업용지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 아래 시작되었으며, 당시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위치했던 시흥과 화성의 머릿글자를 하나씩 따서 ‘시화호’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1994년 옹진군 대부분 일원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되면서 시화호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핵심 수역의 대부분이 안산시의 행정구역에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커다란 지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요 상류 하천인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등 핵심 수계가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에 밀려 ‘시화호’라는 명칭은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고착화된 명칭으로 인해 정작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들조차 ‘시화나래 휴게소’, ‘시화나래 조력 공원’, ‘시화나래 달전망대’ 등으로 명명되어 왔으며, 이는 안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확립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민들은 시화호를 오염의 상징에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하천 정화와 습지 보전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안산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20년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의 치열한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특정 지명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지향적 명칭’으로의 변경과 ‘3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시민 참여 공모전’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취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관계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했으며, 실질적인 협의 채널 또한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명칭 변경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지자체의 의지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 행정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시화호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의 과제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고착화된 명칭의 한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지명 변경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와 화성시는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명칭 변경 협의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호를 공유하는 3개 시의 상생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화호 명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범시민 공모전 및 공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시화호 지명 변경을 위한 지명위원회 심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2026. 8. 24.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